

◆ 교회목표 ◆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현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

가을 학기, 양성부 필히 이수토록

지난 정기당회에서 강력히 권고

당회는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현재 재직 중인 교사 및 찬양대원들이 교사양성부 및 찬양대원 양성부를 필히 수료토록 결정했다.

우리 교회는 교사의 질적향상을 위해 1973년부터 상설로 교사양성부를 설치하여 양성부를 마친 사람에게 정교사 자격증을 주도록 하고 있고 1988년부터는 찬양대원 양성부를 상설로 설치하여 찬양대원 양성에 힘써 오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교사와 찬양대원은 양성부를 거쳐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최근에 다소 해이해진 경향이 있었다. 당회는 양성부 미 이수자는 이번 가을학기에 모두 등록하여 수료하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

교사양성부는 오는 9월 4일에 제39기가 시작되는데 주일반(오후 12:30-14:20)과 화요일반(19:00-20:50)이 있다. 찬양대원 양성부도 9월 4일에 제9기가 시작되고 매주일 저녁 6시 20분~ 8시 10분까지이다.

가을학기 교사양성부와 찬양대원양성부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 찬양대원양성부

제 1 교 시			제 2 교 시		
날짜	강 의 제 목	강 사	강 의 제 목	강 사	
9/4(토)	개강예배	신성종목사	오리엔테이션	윤삼중 강도사	
9/6	교회일꾼의 자격	최인근 목사	찬양대원의 경건생활	윤용규 목사	
9/12	합창호흡 및 발성	최덕식 집사	합창호흡 및 발성	최덕식 집사	
9/19	음악 이론	최광덕 집사	교회음악의 분류	최광덕 집사	
9/26	찬양대의 기원과 발전	이관섭 장로	찬양대원의 자격	이관섭 장로	
10/4	일반 화성학	김영준 집사	일반 화성학	김영준 집사	
10/11	영적 침례와 성장	이종용 목사	은사와 봉사	김양홍 목사	
10/18	찬양과 경배의 능력	조신욱 집사	팝송과 사탄의 전술	조신욱 집사	
10/25	예배음악의 발전사	송숙자 집사	예배와 음악의 관계	송숙자 집사	
11/1	교회음악사	남궁조 집사	교회음악사	남궁조 집사	
11/8	찬송가학	이수철 집사	찬송가 분석	이수철 집사	
11/15	합창역사	김영준 집사	찬양역사	김영준 집사	
11/22	종교개혁의 음악	최광덕 집사	찬양의 사(시편)	김용기 목사	
11/29	성경에 나타난 찬양	김찬곤 목사	충현 찬양대의 발전	이관섭 장로	

교회환경운동 실시키로

초등6부에서 앞장서 7개 실천항목 선정

초등6부(부장 이창호 장로)는 교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당을 보다 아름답고 깨끗하게 사용 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초등6부가 자체에서 이를 시행키로 하고 아래의 일곱 가지 실천항목을 마련했다.

- 휴게 안 배려기 및 휴게 먼저 줄기
- 종이와 학용품 줄이기
- 전기 및 수도를 아껴쓰기
- 교육관 내에서 소리하지 않기
- 먼저 인사하거나 웃으며 조용히 말하기
- 생활질서 지키기

1. 쓰레기 분리수거

◆ 교사양성부

주일반	화요일반	강 의 제 목	강 사	강 의 제 목	강 사
9/4(토)		개강예배	신성종목사	오리엔테이션	윤삼중 강도사
9/5	9/7	하나님의 나라	정광욱 목사	우선순위와 시간관리	최인근 목사
9/12	9/14	영적성장과 성숙	조동원 목사	교육행정 및 관리	이종국 장로
9/19	9/21	교회론	홍창민 목사	그리스도의 주님되심	이홍성 목사
9/26	9/28	섬김의 도	이인우 목사	구원의 상담원리	김희수 목사
10/3	10/5	세계선교의 비전	김양홍 목사	커뮤니케이션	윤삼중 강도사
10/10	10/12	양육의 원리와 실제	이병각 목사	반목회와 신입생관리	한용관 목사
10/17	10/19	교사의 모범	조윤재 목사	소그룹 인도법	장우현 강도사
10/24	11/26	교회를 위한 제자도	이종대 목사	성경교수법	이조웅 목사
10/31	11/2	배가 전도훈련	임성환 목사	예배와 찬양	윤용규 목사
11/7	11/9	교사 사명과 자기관리	김광국 목사	신앙과 윤리	강경철 목사
11/14	11/16	인간 이해와 교육	김수상 목사	소그룹을 통한 교회성장	김성윤 목사
11/21	11/23	반 심방의 실제	장상기 강도사	대중문화와 뉴에이지 운동	김찬곤 목사
11/28	11/30	성령의 은사와 봉사	장봉생 목사	성경해석학	성봉환 목사
12/5		교회학교 실습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김창인 원로목사

- 15일, 16일 구로지구 연합부흥회 설교 (구로 구민회관)
- 19일 소망부 수련회 개회예배 설교 (갈릴리홀)

장년4부와 소망부 수련회

장년4부(60~69세)는 제15회 하기 수련회를 8월 17~1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갈릴리홀에서 갖는다. 장년4부에 해당 성도들은 누구나 이날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한편 소망부(70세 이상)는 8월 19~20일 하기 수련회를 갈릴리홀에서 갖는다.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와 홍창민 목사이다. 소망부는 70세 이상의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학교이다.

군전도회에서

신앙서적 보내기 운동

군전도회(회장 김재명 장로)는 육군 제00사단 신병교육대의 도서관에 기증할 신앙서적을 구하고 있다. 동 사단 신병교육대에는 도서관이 있으나 기독교 신앙서적이 별로 없고 오히려 타종교 관련 서적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서적을 모아 보내기로 했다. 따라서 군전도회에서는 각급 교회학교에 광고하여 학생과 교사들이 일인 한권 이상씩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 관심있는 성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있다. 기간은 22일까지, 보낼곳은 군전도회실(본당1층 108호실)이다.

추가감사실시

상반기 회계감사를 지난 7월 한달동안 실시했으나 아직도 감사를 마치지 못한 부서가 많아서 8월22일(주일)부터 29일(주일)까지 추가 감사를 실시한다. 미필한 부서는 이번 기간에 빠짐없이 감사에 임해야 한다. 감사시간은 주일은 2부 예배후부터 찬양예배 전까지, 수요일은 수요일 1부 예배후부터 오후 4시까지 선교관 404호실에서 실시한다.



여름산상집회

김창인, 나경일, 유창무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여름산상집회를 가졌다. 연일 기도원 본당과 지하, 부속건물까지 가득찬 가운데 열린 집회에 참석자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과 결심의 시간을 가졌다. 집회는 새벽, 오전 강의, 저녁 부흥회로 이어져 숙식을 하며 참석한 사람들은 서로 간에 교제도 하는 좋은 시간들이었다.

세

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다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당하는 시험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발견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치 아니했다고 할 때의 시험과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하는 시험의 글자의 뜻이 서로 다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의 시험은 영어로는 유혹(temptation)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했다 할 때는 시험(test)했다. 혹은 시련(trial)이란 말이 좀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의 뜻을 종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그것은 바로 시련을 통해서 좀더 우리를 발전시켜 주시고, 좀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그릇,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 때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만드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밖에 다른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야, 네가 최고다. 교회일도 너 없으면 안돼, 이 나라 정치도 너 없으면 안돼.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바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넣어주고, 또 하나는 낙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잘났어, 잘났어' 하면서

충현강단



사탄의 현주소

(마 4:1-11)



신 성 중

<목사·당회장>

앞으로 교구라치게 하거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별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뒤로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빵으로 유혹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명예욕을 걸어 넣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3) 나에게 절하라

세 번째 사탄은 예수님을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시험의 장소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시험을 말하는 것인데 사탄 파리는 아주 위대한 외교관과도 같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야, 꺾박이 심할 때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뵈으면 될 것 아니냐. 신 사절에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 되는데, 고개운동을 하는지, 밑에 돌이 있어서 돌을 보았는지, 절을 했는지 누가 아느냐? 잠깐 이렇게 뺏혀라' 이것이 사탄 파리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인 유혹을 항상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3. 사탄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냐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냐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켜주셔서 좀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보다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욕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연단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가 참고 견디어 되는데 그 비결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주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가 참고 견디어 되는데 그 비결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주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주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하면 다른 것은 안보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든 혹은 하나님의 시험이든 우리는 한 가지 목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입이 꼭 막혀서 기도가 안나옵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가 안나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가 나오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험하고 다급한 그때에 기도를 하려면 평소에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중에서 최고는 금식기도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야? 잠깐만 기다려, 성경 찾아보자. 그게 어디 있단가? ...'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평소에 많이 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근심의 보파리, 적악의 보파리, 염려의 보파리, 모든 보파리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서 은혜의 바다위로 마음껏 헤엄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명 성



사람은 누구나 명성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사대에 유명한 사람이 후세에까지 유명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시대의 명성은 권력과 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지만 후세의 영원한 명성은 오직 그가 어떤 사상을 가졌으며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명성을 원하고 있는가? 현세의 명성인가? 아니면 후세의 영원한 명성인가? 여러 사람은 자는 현세의 명성을 추구하고 자해로운 자는 후세의 명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후세의 명성을 추구하는 자는 먼저 자신과 여기실과의 이해 관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죽을 때까지 실천하는 것이다.

글 / 신 성 중 목사

(1)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번째 시험을 보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인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경제 시험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빵이 우선이라고 유혹합니다. '야, 먹는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먹여 살리느냐? 세상에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유혹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국가경제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 경제 ...' 해서 경제 문제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를 살리는 것은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것 같은 영적인 문제, 국민의 의식이 개조가 되어져야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 됩니다. 마음 가짐, 검소한 생활, 경제철학 이런 것들이 전부 경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물론 빵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의 근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허탈 되게, 사치하게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 놓고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성경에 보니까 사자들을 평해서 손으로 밟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지 않도록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화려한 무대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추켜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파리는 저나 여러분들을 화려한 무대 위에 추켜세우면서



□ 장로수양회를 다녀와서 □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 먼저

서 동 석
(장로, 당회 부서기)

동해교회를 센터에 두고 장로수련회집 친교회를 7월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로 다녀왔다. 40여명의 장로들이 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교회버스에 타고 북으로 달렸다. 나로서는 모처럼 녹음이 우거진 산천속을 달리는 기회를 가졌고, 철옹성 같은 공해의 도회지를 벗어나므로 새로운 감정에 싸이기도 하였다. 달리던 차가, 한계령을 넘을때 펼쳐지는 그림같은 산하는 감탄사를 자아 내기에 충분하였다. 달리는 버스속에서 도시락을 꺼내놓고 점심요기를 하라는 주최측의 요구에 식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넘어가지를 아니하여 다수의 요구에 의해 버스를 세워놓고 버스안에서 점심을 먹기 시작하였다. 한데 하필이면 그 좋은 대자연 속에서 버스 안에서 갇힌 채 점심을 먹는다는 답답 목사님이 지적을 받은 후에야 우리들의 우둔함을 깨닫게 되었다. 단 한가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에 그만 40여명의 장로들이 사로잡히고 만 것이다.

동해가 바로 보이는 리조트호텔에 여장을 풀기로 하고 약 20여명 되는 방에 우리는 9명이 배정을 받았다. 이제부터 식사는 장로들이 현지 조달된 재료로 자체 조리하여 먹어야 하고, 청소도, 설거지도 하여야 했다.

예정된 시간에 다시 버스를 타고 인근 군부대를 방문하였다. 부대의 발전사항을 설명들은 후, 장정들이 들어와 훈련을 받고 있는 신병훈련소에 관하여 안내를 받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면서, 30

여년전 군생활과 비교하여 보았다. 달라진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훈련병들은 외모부터 달랐다. 깨끗한 용모에 깨끗한 군복, 군화, 자율급식, 구타가 없는 인격적인 만남과 훈련...등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장병들과 같이 식사를 마치고 급식이 진행중인 한 장병에게 '자네 고향은 어디인가'라고 다정하게 물었더니 급식하던 손을 멈추고 부동자세가 되어서 '네, 충성! 000 인원입니다.'라고 엄청난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바람에 내 자신이 도리어 깜짝 놀라 주춤하기도 하였다.

저녁시간에 동해교회에서 1일 부흥집회가 열렸다. 장로들은 찬양대석에 섰고, 신병훈련병들중 500여명이 집회에 참석하였다. 뜨거운 열기는 동해교회 천정을 날려보낼 듯했고 신목사님은 은혜의 말씀을 토해내기 시작하셨다. 부흥집회를 은혜속에서 마친후 장로들이 출입구 양편에 서서, 준비하여온 다과를 장병들에게 나눠주며 일일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격려를 하였다. 이들의 모습속에서 나라의 장래를 보는 것같이 마음이 든든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부대장을 위시하여 참모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얘기를 듣고 더욱 든든함을 느꼈다.

다음날 새벽기도회를 호텔에서 신목사님의 인도로 은혜중에 마쳤다. 동해의 최북단 통일전망대를 지나 더 북쪽으로 들어가 바로 눈아래 북한땅 금강산이 보이고 그들의 G.O.P가 건너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구름이

끼어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VTR로 설명을 듣는 우리 장로들의 마음은, 북한 선교와 휴전선이 무너져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소리가 하루속히 울려 퍼지는 날을 갈망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변화였다. 북한 땅을 바라보며,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위에 복음으로 통일되는 시온의 때를 주옵소서'라고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소리는 그칠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전망대를 뒤로하며 돌아서서 내려오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였고 이러한 환경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초병이 되어 밤을 낮으로 여기며 불철주야 조국을 지키는 우리의 아들들의 건강을 빌며, '주여 하루속히 통일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다. 이승만, 김일성 별장지에도 들었다.

산과 들과 바다가 맞닿은 동해는 싱그럽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동해의 푸른바다. 백사장... 누가 합창을 제안한 것도 아닌데 우리 장로들의 입에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합창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고 언저리 두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동해의 푸른 물살을 가르며 퍼져 나갔다. 우리를 인도하였던 군목의 인도로 나

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뜨거운 기도를 드렸다. 군인가족으로 '사랑의 전도회'를 만들어 활동하는 사모님들의 정성과 그 놀라운 전도열에 머리를 숙였다. 군인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좌절과 번민에 처하여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여, 건전한 군복무를 마치게 하는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군복음화에 앞장선 많은 이들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한 그들의 모습은 거룩하기만 하였다.

돌아오는 날인 17일은 하루종일 비가 내렸다. 새벽기도회후 교회를 위한 토론은 끝이 없었고, 아침식사는 10시경에, 점심은 오후 4시경에 하였다. 이번 장로수련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이때까지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게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김에 있어 군인들이 국토방위에 목숨을 내어 걸고 불철주야 지킴과 같이 교회를 섬기리라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갖게 되었으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먼저 라는 깊은 교훈을 갖게 해준 유익된 수련회였다.

주님! 우리나라와 겨레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땅을 밟는 순간부터 뭔가 정들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 후덥지근한 무더위가 불쾌지수를 상승시켰고 공항에서 입국수속하는 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부정과 부패의 모습속에서 무지한 사람들의 근성을 보게 되었다. 우리 일행을 마중나와주신 서만수 선교사님 내외분과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을 보는 순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반갑고 감격스러웠다. 그 쪽에서는 미리 준비해온 화환을 우리 목사님(김양홍)께 걸어드리며 환영해주었다.

세대의 봉고차에 각각 나누어타고 잘란 라디오(JL.RADIO)에 있는 연합교회 교육관에 도착했다. 우리 시간과 두 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있는데 그곳에 도착하니 우리 시계로 밤11시, 그곳 시간은 9시였다.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국수와 열대과일들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깐 도착기도회를 하고 난

후 내일부터 있을 교사강습회와 주일학교 문제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곳 현지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우리들의 준비가 부족했

아침에 서만수 선교사님께 드렸더니 만족해 하셨다.

화요일 새벽4시 모슬렘들의 기도소리가



인도네시아 현지 선교훈련을 다녀와서(1) 영아부에서 중고등부까지 수련회를 인도하며

이 복 회
(집사, 선교훈련원 간사)

음을 알 수 있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교재는 준비가 되었으나 영아부 교재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아신 서만수 선교사님께

상가집의 곡성처럼 음산하게 들려오고 눈을 뜨고 천정벽을 보니 도마뱀이 천연덕스럽게 활보하고 다닌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한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들은 5시에 새벽기도로 재무장을 하고서 아침 9시에 그곳 교사들을 모아놓고 교사강습회를 시작했다. 준비해간 복음송과 울동 또 감목사님의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일부터 사흘동안 있을 제철학교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곳 교사들과 의논했다. 모든 것을 우리들이 주관하여 책임지고 하되 그쪽 교사들은 약간의 보조만 해주는 정도로 일을 분담했다. 철저히 알고 준비하지 못한 송구함과 더불어 철저히 훈련 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느끼면서 순간 순간 최선만 다하기로하고 무엇을 맡기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감당해 나가기로 했다.

7월28일 수요일 아침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8시 30분부터 30분간의 교사기도회와 함께 9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영아부 예배와 분반 및 찬양과 울동, 또 작은 놀이와 미니 올림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11시 40분까지 일백여명의 아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영아부를 마치고 곧바로 국수정도의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고 12시부터 유·초등부를 그 자리에서 해아만했다. 잠시 쉴 틈도 없었다. 준비찬양과 울동을 맡았던 대원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는다. 유·초등부는 12반으로 나누어 백이십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서 사흘간의 진지하고 신나는 다채로운 행사로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가졌다. 그곳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할 뿐...

2시 50분까지 유·초등부를 마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중·고등부를 시작해야만 하기에 긴장을 풀어서는 안되었다. 3시부터 중·고등부 준비찬양과 말씀·분반 또 성극·반별 찬양대회 퀴즈대회 등 유·초등부와는 약간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서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 학생들의 진지하고 똑똑한 모습 속에서 모두들 작은 선교사로서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6시까지 중·고등부 집회를 마치고 저녁식사후엔 서만수 선교사님의 강의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소개와 그동안 사역하시는 중에 몇 가지 등을 말씀하시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사흘간의 집회를 마쳤다.



● 제2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 지도자 대회를 마치고



풍성함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김 양 흡

(목사, 22교구 · 선교위원회 지도)

대한 도전을 받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이 충만에서 떠나지 않겠느냐고 진지하게 질문을 해오는 청년도 있었다.

우리가 대회를 치른 곳은 나고야에서도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30분

이상 들어가는 시골이었다. 그 곳의 온도는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도착하면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밤에는 비가 오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이는 시원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그들은 모두 이상하다고 말했으나 우리는 모두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런 날씨를 허락해 주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날에 대회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노방전도를 나갔다. 그 동안에 준비해 온 판토마임, 간증, 찬양, 율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지를 배부하는 전도 모임이었다. 각자가 조를 짜서 길거리로 나갔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한 모퉁이에서 전도를 시작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누구 한 사람 지켜서 보거나 듣는 사람이 없었다. 전도지를 나눠 주면 이상한 종이를 나눠주는 사람들처럼 보였는지 받지도 않았다. 메마른 심령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모두 바쁘게 움직이기에 이 초초에 웅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대원 중의 일부는 낙심을 품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온 열정을 다했는데 한 사람도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니 낙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듣든지 아니듣든지 전파하자'는 결심을 하고 열심히 전하였다.

그들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서 무더진 마음과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서의 여유와 결핍과 도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신사와 사찰, 그리고 온갖 미신단지들로 가득차 있는 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또한 사실이라 생각된다. 물가가 비싸기에 우리 나라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며 선교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에 가는데 30여명 정도 모이는 교회면 지역에서 큰 교회로 인정되는 절경인 일본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먼 나라가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과거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곳을 위한 선교에 열심을 더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네느웨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사역 위에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소서.
· 김창인 목사님 : 8월15일(주일), 16일(월) 구로지구 연합부흥회 설교(구로 구민회관), 19일(목) 소망부 수련회 개회예배 설교(갈릴리움)
2.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 백성을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소서.
3. 8월20일에 대입 수험능력평가시험을 치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소서.
4. 장년4부 여름수련회(17,18일)과 소망부 여름수련회(19,20일)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를 향하던 요나의 심정을 가지고서나 할 수 있을까 그 외의 다른 방도는 없어 보였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인지 일본의 성도들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며 사죄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 예배 시간에도 공개적으로 사죄를 요청해오기도 했다.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고 사과하는 성도들도 있었다. 자기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조상의 죄를 회개한다고 했다. 우리도 나라를 대표할 성격은 없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미워했던 것들을 사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뜨거운 교제의 시간도 갖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 혈통을 넘고, 국경을 넘는 사랑의 띠를 볼 수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움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픈 상처를 감싸고 함께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위치를 재확인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모든 모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 민족을 뛰어 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민족주의적

성격을 탈피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청년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대회는 참으로 유익한 것이었다. 이 대회를 진행하는 스텝진들의 마음은 청년들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그들의 비전이 더욱 더 구체화 되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이 대회가 한일만의 대회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다음 대회는 한문을 사용하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확산되어져서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파하자고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나라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는 지금의 젊은이들의 헌신에 달려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지금의 젊은이들을 위해 더욱 더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이 재삼 강조가 필요 없는 사실이다.

한일 대회를 마친 후의 나의 기도는 바뀌었다. "주님, 준비한 만큼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이상으로 주셔서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큰 비전을 갖고 더욱 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 대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대회가 계획될 때부터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였다. 이 대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두달 남짓 모여서 기도하며 훈련을 받는 도중에도 이러한 나의 기도는 계속되었다. 이것은 나의 기도만이 아니었으며 우리 전체의 기도가 되었다. 우리는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 준비가 철저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준비하였다.

우리의 일정표대로 비행기를 탈 수 없기에 비행기 시간에 맞추느라고 부득불 하루 일찍 출발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었다. 공식적 행사가 시작되기 전이므로 프로그램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 새벽예배에서 우리는 이 대회가 성령대회가 될 수 있었음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교회의 방식대로 새벽예배는 진행되었다. 설교 후에 각자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은 심령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간절한 외침의 기도를 드렸다. 중간에 그만 할 것을 알리는 신호가 있었음에도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나중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로 기도가 계속되었다. 이 대회가 은혜스럽게 진행되며, 일본의 청년들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 청년들도 새로운 비전을 더욱 더 확실하게 갖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기도하는 가운데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마루를 적시는 눈물도 있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들 중에 일부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당신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느냐는 것이다. 이 말은 일본에 와서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도가 들어 있는 말이기도 했다. 이것은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했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은 통성기도에 동참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신 신생종 목사님은 일본의 차갑고 제식적인 찬양을 한국의 뜨거운 찬양과 절목시키기 위해서 더욱 더 뜨겁게 말씀을 증거하셨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복음을 볼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나라가 기독교화 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앞으로 세계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다. 말씀을 마칠 때마다 함께 하는 통성 기도에는 목장가도를 즐기던 일본 청년들의 입술이 터지기 시작했다. 후에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안 사살이제만 성령 충만에

